

KIA 든든한 뒷문지기 향해... GO! 영창



보스턴 전설 오티스, 코로나 의료진에 ML 평생권

미국프로야구(MLB) 보스턴 레드삭스의 전설인 데이비드 오티스(45)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일선에서 싸우는 의료진에게 뜻깊은 선물을 건넸다.

14일 MLB닷컴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오티스는 최근 배우이자 영화 제작자인 존 크래신스키의 유튜브 쇼 '어떤 좋은 뉴스'에 출연해 코로나19와 싸우는 보스턴 베스 이스라엘 디커너스 병원 의료진에게 보스턴 경기 평생 입장권 4장을 선사했다.

보스턴 출신 크래신스키는 의료진 5명과 대화 중 "(코로나19로 정규리그가 무기한 연기돼) 우리 모두 야구 시즌을 그리워하는데, 이것이 내가 야구를 당신들에게 가져다줄 수 없다는 걸 의미하진 않는다"며 화상으로 오티스를 불렀다.

화면에 등장한 오티스는 "보스턴 구단이 베스 이

스라엘 병원 모든 이가 공유할 수 있는 레드삭스 평생 입장권 4장을 기부할 것"이라며 깜짝 선물을 전달했다.

크래신스키와 오티스와 기증자로 쇼에 나서고, 보스턴 구단이 입장권을 증정하는 형식이였다.

오티스는 의료진의 노고에 "가슴 속 깊은 곳으로부터 당신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존경하는지 말하고 싶다"고 말한 뒤 보스턴의 명물인 수목양양차 '우리 보트'를 언급하고 "보스턴에서 가장 위생이 철저한 오리 보트에 의료진을 태워 펜웨이파크로 데리고 가 이들에게 시구를 맡길 예정"이라고 말했다.

보스턴 구단 홈페이지에 올라온 올해 시즌 티켓 1장의 가격은 497달러(약 605만원)에서 1만1663달러(1420만달러)에 달한다.

/연합뉴스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것을 배운 고영창이 '정면 승부'로 7.8.9회가 편안한 야구'를 만든다.

지난 시즌 KIA 타이거즈는 '젊은 마운드'라는 큰 수확을 얻었다. 그 중심에는 투수 조장오 마운드를 이끈 고영창이 있다.

올해로 대졸 8년 차인 고영창에게는 지난해가 사실상 데뷔 시즌이었다. 2018년 1군 무대에서 두 경기를 던졌지만 결과는 좋지 못했다.

지난 시즌에는 특유의 투심으로 어필하면서 55경기 54이닝을 소화했다. 3.50의 평균자책점으로 1승 3패 1세이브 10홀드를 기록했다.

'박하전문'으로 언급된 필승조의 연결고리가 바로 고영창이었다.

이번 흥행전에서 고영창은 2, 4차전을 제외한 7경기나 나와 시즌을 준비하고 있다. 늦어진 개막이 고영창에는 오히려 도움이 됐다.

고영창은 "겨울에 잘 준비했다고 생각했는데 컨디션이 생각보다 안 올라왔다. 다행히 페이스가 올라오고 있다"며 "캠프 때 공을 많이 못 던져서 감각이 많이 떨어졌던 것 같다. (흥행전이) 실전 감각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된다"고 언급했다.

지난 시즌은 고영창에게 꿈같은 시간이었다.

고영창은 "가장 기억에 남는 한 해였던 것 같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했으니까 야구를 20년 정도 했다. 야구가 너무 재미있다고 생각했던 게 작년이 처음이었던 것 같다"며 "챔피언스필드 많은 관중 앞에서 던진 것도 처음이었고, 위기 순간에 응원받으면서 한 것도 처음이었기 때문에 그 감동을 잊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순간이 오면서 욕심이 앞섰다. 지난 시즌 중반 부진에는 부상이 있었다.

고영창은 "중간에 어깨 통증이 한 번 왔다. 워낙 힘들게 잡은 기회였기 때문에 아픈 것을 숨기고 계속 시합에 나가고 약 먹고 했었다. 그게 독이 됐던 것 같다"며 "첫 시즌이다 보니까 힘들게 잡은 기회를 놓치기가 싫어서 욕심을 부렸는데 안 좋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은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하면서 몸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있는 고영창이다.

지난 시즌 실패를 돌아보면서 '정면 승부'를 올 시즌 전략으로 삼았다.

고영창은 "지난해 투심을 많이 던지는 투수라는 걸 모든 구단이 알게 되면서 후반기에 투심을 많이 노리고 들어왔다"며 "처음에는 변화구를 섞어서 던져야겠다고 생각해서 슬라이더, 커브도 던졌는데

KIA 투수 고영창

지난해 55경기 평균자책점 3.5
마운드 필승조 연결고리 '톡톡'
시즌 중 부상 악몽에 체력관리 심혈

올 자체 흥행전 7경기 출전
강점인 투심으로 정면 승부
슬라이드 구위에도 자신감

"내야진과 환상 호흡 기대하시라
밍고 보는 7·8·9회 만들 것"

속 시합에 나가고 약 먹고 했었다. 그게 독이 됐던 것 같다"며 "첫 시즌이다 보니까 힘들게 잡은 기회를 놓치기가 싫어서 욕심을 부렸는데 안 좋게 됐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은 욕심을 버리고 열심히 하면서 몸관리에 신경 쓰고 있다. 급할수록 돌아가고 있는 고영창이다.

지난 시즌 실패를 돌아보면서 '정면 승부'를 올 시즌 전략으로 삼았다.

고영창은 "지난해 투심을 많이 던지는 투수라는 걸 모든 구단이 알게 되면서 후반기에 투심을 많이 노리고 들어왔다"며 "처음에는 변화구를 섞어서 던져야겠다고 생각해서 슬라이더, 커브도 던졌는데

오히려 약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차라리 투심을 더 강하게 낮게 던지면, 방망이가 나오다 맞으면서 땅볼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으니까 그걸 중점적으로 던질 생각이다. 슬라이더도 자신감이 생겼다"며 강점인 투심으로 정면 승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고영창의 자신감에는 든든한 내야진이 있다. 김선빈-박찬호 키스톤 콤비와 함께 장영석, 김주찬, 유민상 등이 고영창의 뒤에 있다.

고영창은 "지금 내야수들이 좋고 든든해서 빨리 (정규시즌에서) 던지고 싶은데, 그 선수들 상대하면서 던지고 있다. 빨리 그 수비의 맛을 보고 싶다. 수비하면서 희열도 느끼고 싶고 기대가 된다"고 말했다.

고영창도 지난 시즌보다 좋은 성적으로 팀에 도움이 되는 걸 꿈꾸고 있다. 특히 '승계 주자'에 대한 고민을 해결하는 게 고영창의 목표다.

고영창은 "작년에 승계 주자를 많이 막지 못했다. 투수들에게 미안했고 특히 (김)기훈이 점수를 많이 줬다. 이번에 막아야지 막아야지 하면서도 잘 안 됐다. 기훈이는 웃으면서 괜찮다고 하는 게 제일 미안했다"며 "올해는 작년처럼 그 순간에 나가면 반드시 막아보도록 노력했다. 더 갖고 뛰어서 (투심이) 예리하게 떨어질 수 있게 연습했다"고 언급했다.

'젊은 마운드'의 넘버 2, 지난해를 새 신랑도 된 만큼 책임감은 더 커졌다.

고영창은 "연차도 그렇고 결혼하면서 책임감이 커졌다. 더 잘해야겠다고 다짐하고 있다"며 "지난 시즌 팬들에게 불편의 좋은 모습 보여드렸는데 올해도 7.8.9회가 편안한 야구가 되도록 같이 노력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KIA 김윤동 어깨 수술

KIA 타이거즈 투수 김윤동이 14일 우측 어깨 수술을 받았다.

김윤동은 이날 서울의 한 정형외과병원에서 오른 어깨 전방 관절와순 봉합술을 받았다.

지난해 4월 18일 시작원정경기에서 대흉근과 관절와순 부상을 입은 김윤동은 그 동안 재활 치료와 근력 강화 등 비수술적 방법으로 재기를 노력했다.

하지만 대흉근 손상 부위는 완치됐으나 관절와순 손상 부위 호전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최근 수술이 필요하다는 의사의 소견을 받았다.

3일간 입원 치료를 하는 김윤동은 이후 6주 정도 보조기를 착용하고, 약 6개월 후부터 본격적인 재활 훈련에 나설 예정이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프로야구, 다음주부터 팀 간 연습경기

KBO, 27일까지 무관중 20경기...KIA, 삼성·NC와 4게임

21일부터 프로야구 연습경기가 진행된다.

KBO가 14일 서울 야구회관 인근 캠프양재터 앞에서 긴급 이사회를 열고 정규리그 개막 시점과 팀 간 연습경기 일정을 논의했다.

일단 타 구단과의 연습경기는 특이사항이 발생하지 않으면 21일부터 27일까지 팀 당 4경기씩 총 20경기를 무관중 경기로 치르기로 했다.

정규시즌 개막일이 확정되면 연습 경기 일정을 추가 조정할 방침이다.

KIA는 21일 삼성과의 홈경기를 시작으로 23일 한화 원정, 25일 NC 원정 그리고 27일 NC와의 홈경기를 치른다.

연습경기는 당일치기로 치르기 위해 인접한 팀끼리 일정이 짜였다.

정규시즌 개막일 일정은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이 끝나는 19일 이후 확진자 추세 등을 판단해 오는 21일 이사회에서 확정하기로 했다.

KBO는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에 따라 5월 1일 무관중 경기도 고려하고 있다.

한편 윌리엄스 감독은 "연습경기 일정이 확정되어서 기대가 크다. 스태프 미팅을 통해 홈, 원정 엔트리 및 훈련에 관해 논의할 예정이다. 잘 준비해서 좋은 경기 보여드리겠다"고 언급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조국 코로나 퇴치에 써달라" 드로그바, 치료 병원 제공

'아프리카 축구 영웅' 디디에 드로그바(42)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싸우는 조국 코트디부아르를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영국 데일리메일 등 외신은 14일 드로그바가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 있는 자신의 재단 소속 병원을 코로나19 치료센터로 제공했다고 보도했다.

드로그바는 아프리카인들의 건강과 교육 등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 사업의 하나로 자국 축구의 전설인 로랑 포쿠의 이름을 따 2016년 이 병원을 열었다.

아비장 지역 의회 의장은 "애국심에서 나온 드로그바의 이 선동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아프리카 국가들은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의료 시설이 낙후돼 코로나19가 확산하면 피해가 클 수 있다고 우려한다.

코트디부아르에서는 지난달 11일 코로나19 첫 감염자가 나온 이래 현재 누적 확진자 수가 500명을 넘어섰고, 5명이 사망했다.

2018년 은퇴한 드로그바는 2004년 잉글랜드 첼시 유니폼을 입은 이후 전성기를 누리며 2006-2007, 2009-2010시즌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에 올랐던 세계적인 공격수다.

손흥민 '70m 원더골' EPL 최고 골 후보에

지난해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케 했던 손흥민(토트넘 홋스퍼·사진)의 '70m 질주 원더골'이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역대 가장 멋진 골 후보에 올랐다. EPL 중계권사인 영국 방송 스키이스포츠 인터넬트는 14일 EPL 역사상 최고로 멋진 골을 뽑는 팬 투표를 시작하면서 후보 50골 중 하나로 손흥민의 골을 선정했다.

스키이스포츠는 "손흥민의 질주는 토트넘 진영 깊숙한 곳에서 시작해 번리 진영을 가로질러 골망을 갈랐다"라고 감탄하게 골을 묘사했다.

손흥민은 지난해 12월 번리와의 정규리그 16라운드에서 전반 32분 폭풍 질주 후 골을 넣어 축구 역사에 기록될 득점 장면이라는 찬사를 받았다.

토트넘 진영에서 공을 잡은 손흥민은 약 70m를 내달리며 무려 6명의 번리 선수를 따돌리고 오른발 슈팅으로 골망을 흔들었다.

손흥민의 골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 때 디에고 마라도나의 60m 단독 질주 골 등 역사적인 골들과 비견할 만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손흥민의 골은 3번째 발표된 16개 후보 골 중 6위에 머물렀다. 오전 8시 현재 5%의 득표율에 그치고 있다. 투표는 스키이스포츠 홈페이지에서 하면 된다.



/연합뉴스